

# 전남도, 지정 관광지 조성사업 수십년째 ‘지지부진’

17개 시군 27곳 중 7곳만 조성 완료 지정후 최소 14년 최대 47년째 답보 최선국 “무리한 관광개발 추진 원인” 전남도 “시군 예산 확보·관리에 한계”



지는 △나주 나주호 △곡성 도립사 △영암 성기동 △영암 마한문화공원 △무안 회산연꽃방죽 △장성 흥길동테마파크 △신안 대광해수욕장 등이다.

전남도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지역내 지정 관광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수십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개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나머지 20곳은 최소 14년, 최대 4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가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남 17개 시군에 총 27개소가 관광지로 지정돼 있으나, 이중 7곳만 조성 완료됐다. 조성 완료된 지정 관광

특히 지정된 지 40년이 넘는 관광지는 4곳, 30년 이상 7곳, 20년 이상 3곳, 10년 이상 된 곳은 6곳에 달했다.

실제 답양호의 경우 지난 1977년 8월 16일 관광지로 지정, 1987년 10월 5일 조성계획이 최초 승인됐으나 지금도 조성단

계에 머물러 있다. 장성호 또한 1977년 8월 16일 관광지로 지정, 1983년 2월 17일 조성계획이 최초 승인됐으나 47년째 답보 상태다.

전남 대표 온천 관광지인 화순온천은 1984년, 구례 지리산온천과 화순 도곡온천은 1989년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조성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성 울포해수욕장과 완도 신지명사립리 등 주요 해수욕장도 각각 1991년, 2007년 관광지로 지정돼 1995년, 2008년 조성계획이 최초 승인됐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성 한국차·소리문화공원 △화순 운주사 △장흥 장재-우산도 △강진 대구도요지 △해남 우수영 △해남 땅끝 △영암 영산호 △함평 사포 △영광 불

갑사 △완도 해신장보고 △진도 회동 △진도 녹진 △진도 아리랑마을 등도 지정된지 최소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단계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정한 △경도해양 △여수화양 △여수철리지파크 △해남오시아노 △진도대명리조트 등 관광단지 5개소 또한 최소 8년에서 최대 30년간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도내 27곳 지정 관광지 중 74%에 해당하는 20곳이 아직 조성 중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답양호는 47년, 진도 회동은 승인된 지 37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관광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관광단지의 경우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관광지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각 시군에서 이를 담당하다보니 전남도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시군의 관광지 예산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계획도 계속해서 변경되다 보니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전남도는 해당 관광지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매년 10년 이상 노후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3곳을 선정해 도비 50%를 지원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도시공사, 물품구매 예산 집행 관리 미흡”

임미란 “예산·실제 지출 차이 나” “가격경쟁 도입해 신뢰성 높여야”



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란(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에서 설계금액과 계약 금액이 동일한 사례가 230건(54.6%)에 이르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집행한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421건 중 191건(45.4%)에서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예산을 초과한 사례는 25건으로 총 24억 3000만원에 이르며, 예산 절감 사례는 166건으로 절감액이 128억 5000만원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의 경우 10% 전후해 낮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계약 체계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절감액이 이정도 수치까지 나온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반대로 예산 초과로 총 2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출된 것은 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

임 의원은 “예산 산정의 부정확성과 집행 계획의 미흡함이 도시공사의 재정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예산 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서용규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료비 단가 높아”

서용규(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위탁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가가 임플란트 85만~200만원, 틀니 70만~200만원 등 일반병원보다 많이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 대상이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치

료비 감면(50%)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서 의원은 “예약기간도 길어 제때 치아 치료를 하지 못해 치아 상함이 발생하고 있고, 긴 대기시간으로 발달장애 환자들이



의 돌발행동과 감정 기복이 심해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장애인 기관 순회 등 장애인치과 이동진료 사업과 장애인 구강 보건 교육 확대 실시, 심야 응급전화 상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무안-도쿄 진에어(JIN AIR)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 3,000), 매니퍼,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